

에너지 기술전망 워크숍 6월10일 개최

지식경제부는 한국에너지자원기술 기획평가원 주관으로 6월6일 국제에너지기구(IEA)가 발표한 에너지기술 개발 장기 전략인<에너지기술전망 2050>에 대한 전문가 토론 워크숍을 6월10일 노보텔엠버서더호텔에서 개최한다.

IEA는 에너지기술을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 가속 등 에너지위기 해결의 열쇠로 보고 2050년까지의 에너지기술개발전략을 수립 했으며, 2050년까지 CO₂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시나리오 및 로드맵 제시했다.

워크숍에서는 IEA사무국 에너지기술과장인 네일 허스트(Neil Hirst)가 제2차 보고서(ETP 2008)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, 에너지원별 국내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및 국내 전문가 150여명이 함께 하는 종합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.

지식경제부는 “에너지자원기술 기획평가원과 함께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양한 국제적 이슈와 국내의 현안을 종합 분석해 국가 에너지기술정책의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화학저널 2008/06/09>